

전남

민선 5기 단제장에 듣는다

서삼석 무안군수

목포 한국제분 공장 철거-존치 논란

“사일로 등 산업 유산·문화공간 재 활용”

“삼학도공원 복원사업 걸림돌 철거해야”



철거와 존치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제분 목포공장 사일로.

목포시의 삼학도공원내에 위치한 한국제분 공장 사일로에 대한 철거와 존치를 놓고 찬반 논란이 거둬지고 있다. 최근 목포시 상항실에서 열린 한국제분 활용 방안 검토 중간보고회에서는 ‘산업적 유산과 문화예술폰 공간으로 활용의 가치가 있어 존치하자’는 측과 ‘삼학도 옛 모습을 되찾는다’는 복원사업 취지에 맞지 않아 철거해야 한다는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목포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최대한 자연을 살려 옛 모습을 되찾는다는 취지로 많은 사업비를 들여 복원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일로 등을 존치하자는 것은 복원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학도보존회 관계자도 “사일로 등을 존치시켜 재활용하자는 것은 당초 복원화 사업의 본질에 어긋난 것”이라며 존치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목포산업의 상징물인 한국제분 공장의 철거보다는 일부 존치

를 통한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목포시 조요한 의원은 “공장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국내외적으로 많다”며 “제분공장 일부 구조물을 뜻있게 잘 활용할 경우 원도심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희망제작소 김상운 연구위원도 “개항 113주년을 맞는 목포는 역사적 도시이자 예항의 도시로서 삼학도 복원도 좋지만 역사를 자랑하는 문화산업도 함께 보존해 후세대들에게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유역사인 희망제작소는 이날 일정 시간을 두고 다양하고 신중하게 검토한 후 한국제분 공장 존폐여부를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한국제분 목포공장은 지난 1971년 2만2000㎡ 부지에 38m 높이의 사일로 20기 등을 시설하고 가동에 들어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함께 해왔으나 2011년 충남 당진으로 이전된다. /서부취재본부=이성선기자 sslee@

“기업도시 건설·국제공항 주력”

“무안발전의 신 성장동력이 될 무안 기업도시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삼석 무안군수는 “기업도시 건설과 함께 무안 국제공항을 동북아의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고 무안시 승격의 토대가 될 남악신도시 활성화를 민선 5기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 군수는 “무안 기업도시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남악신도시의 조기 활성화를 발판삼아 2012년을 목표로 무안시 승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기업이 오고 외국 자본이 유입되면 고용 창출과 인

지 양도 대상을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해 복지정책에 대한 체감도 높여가겠다. 기존 노인 요양시설 운영을 지원함과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노인 수요에 맞춰 관련 시설이나 공공보건의 시설을 확충하고 노인생활에 대한 편의지원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문화예술관광사업으로는 초의선사 탄생지에 차분채 체험관을 건립하고 회산백련지에 대규모 관광지를 조성하며 입주민이 크게 늘어나는 남악신도시에는 오픈산 도시신용관 조성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서 군수는 지역간 균형 있는 개발과 성장기반 구축도 약속하고 이를 위해 “황토클리닉타운 조성으로 무안을 공동화해 대비하며 황토면에는 거점면소재지 종합개발사업을, 풍탄면에는 은퇴자 마을과 전통시장 환경개선 등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서 군수는 “군민의 의견을 균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군민정책배심원단도 운영하겠다”며 “군민참여감사제도도 활성화시키고 실시간 고객 만족도 조사 시스템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서 군수는 “군민 모두가 군정발전을 위한 뜨거운 가슴으로 역량을 한데 모아 ‘세계로 뚫어주는 활력 넘치는 새 무안 시대’를 열어가자”고 당부했다.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해남 쌀로 만든 ‘생막걸리’ 이마트 등 전국 유통업체 판매

해남 쌀을 이용해 만든 생막걸리가 전국 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를 통해 판매된다. 해남군은 ㈜배상면주가가 100% 해남 쌀을 원료로 만든 ‘배상면 백년 생막걸리’가 12일 출시된다고 11일 밝혔다. 화산농협(조합장 오상진)은 지난해부터 배상면주가의 생막걸리 원료 곡으로 5%의 해남쌀을 공급해 왔다. 앞으로 백년 생막걸리가 판매되면 하루 8t 정도의 쌀이 공급될 것으로 보여 해남 쌀 판매 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입쌀보다 국산 쌀로 만든 막걸리에는 유기산이 풍부해 독특한 맛을 내고 피부와 몸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화순 도곡은천단지 분양온천 들어선다

화순 도곡 은천단지 내에 휴양하면서 병원치료를 받는 ‘보양온천’이 들어선다. 11일 화순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보양온천 승인심사위원회가 오는 2012년에 도곡 은천단지 내에 들어설 ‘보양 온천’을 보양온천으로 지정, 승인했다. ‘보양 온천’은 온천법에 따라 물 온도와 성분 등이 우수하고 주변 환경이 양호해 건강증진 및 심신요양에 적합한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한다. /중부취재본부=정은수기자 unssu@



김상 의장 이준연 의장 무안군의장 김 산 영광군의장 이준연 무안군의회는 지난 9일 제18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전반기 의장에 재선인 김산(52) 의원, 부의장에 김천성 의원을 선출했다. 영광군의회는 9일 제170회 임시회를 열고 전반기 의장에 이준연(59) 의원, 부의장에 김양모 의원을 각각 뽑았다. /서부취재본부=김민준·조익성기자 jun@

화순 도곡 은천단지 내에 휴양하면서 병원치료를 받는 ‘보양온천’이 들어선다. 11일 화순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보양온천 승인심사위원회가 오는 2012년에 도곡 은천단지 내에 들어설 ‘보양 온천’을 보양온천으로 지정, 승인했다. ‘보양 온천’은 온천법에 따라 물 온도와 성분 등이 우수하고 주변 환경이 양호해 건강증진 및 심신요양에 적합한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한다. /중부취재본부=정은수기자 unssu@

남악신도시 조기 활성화 무안시 승격 추진 ‘황토클리닉타운’ 조성 무안읍 공동화 대비

구증가·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 군수는 “무안국제공항이 동북아의 물류 거점공항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규노선을 개발하고 정지권·중앙정부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해 광주공항 국내선의 무안공항 이전과 KTX 호남 고속철도의 무안공항 경유를 반드시 실현하는 등 공항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 군수는 또 경쟁력 있는 농업 육성을 위한 방으로 황토랑 유

통공사 활성화와 농어민이 안심하고 창업에 종사하도록 도와주는 풍수해보험·농수축산물 재해보험 가입지원 확대와 수산물 산지공시실 확충계획도 마련했다. 특히 농업과 축산업이 상호 보완해 공존할 수 있도록 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등을 설치해 자연순환농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특산물을 기반으로 중소 식품클러스터도 만들어 지역농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도 유도하기로 했다. 또 군민이 체감하는 따뜻한 복지 실현과 민생적인 반근에 주력하

새얼굴 ‘각종 범죄 예방 주민보호 최우선’

임광문 강진경찰서장 무안 출신인 임서장은 경찰대학과 전남대 대학원(사법경찰 행정학석사)을 졸업했으며 여수경찰서 보안과장·광주경찰청 인사계장·전남경찰청 정보통신담당관 등을 지냈다. 가족으로는 부인 김애자씨와 사이에 2남을 두고 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신안 우이도 사구 출입금지 5년 연장 동양 최대 모래 언덕인 신안군 우이도 풍성 사구(風成砂丘·사진) 출입금지 기간이 5년간 연장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소장 황정걸)는 우이도 풍성사구를 보호하고 훼손된 부분의 원상회복을 위해 출입금지 기간을 오는 2015년 7월 16일까지 연장 출입통제하기로 했다. 신안군 초도면 우이도에 위치한 우이도 사구는 ▲해발 고도 100m ▲수직고(높이) 50m ▲경사 33도 규모로 겨울철 불어치는 강한 바람이 모래를 밀어올려 만들어낸 동양 최대 모래언덕이다. 사구 일원에는 사구식물 등 각종 희귀 동·식물이 자생하고 있으며 해안모래와 지하수의 저장기능까지 갖추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조완범기자 wncho@

신안군 초도면 우이도에 위치한 우이도 사구는 ▲해발 고도 100m ▲수직고(높이) 50m ▲경사 33도 규모로 겨울철 불어치는 강한 바람이 모래를 밀어올려 만들어낸 동양 최대 모래언덕이다. 사구 일원에는 사구식물 등 각종 희귀 동·식물이 자생하고 있으며 해안모래와 지하수의 저장기능까지 갖추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조완범기자 wncho@

대인동심일부동산 (FAX)224-1772 TEL 011-602-2532 (동주동 신촌2동, 대인동 4동(재건축·재))

현대공인중개사 T. (062)371-1900, 010-2006-0115 상무 무리법원에서 50m지점 www.85858948.co.kr

아담공인중개사 010-3616-8698 062-233-2222

GG경매컨설팅(주) 공인중개사: 김영희 TEL 062-364-8700 H.P.010-4608-3700